제14강 과거의 네 가지 역설과 과거의 수축

(1교시)

◆동시(간)성의 역설과 공존의 역설
※학습목표: 들뢰즈가 말하는 시간의 역설 중 앞의 두 가지 역설을 살핀다.

▲동시간성의 역설
「*과거를 두 현재 사이에 끼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현재-과거가 한때 구가했던 현재이든, 그것이 과거이기 위해 거리를 둔 현재이든-로부터 출발하여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사실 우린 과거가 한때 현재였다가 그 이후에 구성된다거나 새로운 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성된다고 믿을 수 없다. 만일 과거가 과거로서 구성되기 위해 새로운 현재를 기다려야 한다면, 사라진 현재는 결코 이행할 수 없으며 새로운 현재 또한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린 과거가 한때 현재였다가 그 이후에 구성된다거나 새로운 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성된다고 믿을 수 없다. 만일 과거가 과거로서 구성되기 위해 새로운 현재를 기다려야 한다면, 사라진 현재는 결코 이행할 수 없으며 새로운 현재 또한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는 현재인 '동시에' 과거가 아니고서는 결코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과거는 먼저 한 때 현재였던 '동시에' 과거로서 미리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역설이다. 이는 과거와 그것이 한때 구가했던 현재의 동시간성의 역설이다.*」
-시간을 지나는 한 지점이 현재인데, 현재는 곧 과거가 된다.
-수평으로 쌓이는 모델에서 과거가 따로 있다면, 과거가 현재를 기다리고 있다가 현재들을 받아서 자기를 구성한다면, 지나감pass은 없다.
-과거와 현재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동시간적이다. 그래서 이를 시간의 동시성의 역설paradox라 한다.

▲공존의 역설
「*우리는 이 역설에서 지나가는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유를 찾을 수 있다. 현재가 언젠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현재를 위해 지나가는 것은 과거가 현재로서의 자기 자신과 동시간적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두 번째 역설, 곧 공존의 역설이 뒤따른다. 과거는 첫 번째 현재(현행적 현재) 이후에 있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두 번째 현재(사라진 현재) 안에도 있지 않다. 따라서 베르그송은 각각의 현행적 현재는 단지 지극한 수축 상태의 과거 전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현재가 끊임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과거가 그 현재와 동시간적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지나가면서 쌓인다. 이것이 과거가 된다. 그런데 그 과거 전체는 현재와 공존한다.
-현행적 현재가 된 다음에 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현행적 현재가 동시에 과거가 된다. 그래서 과거는 현행적 현재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있다.
-과거가 현재 밑으로 쌓인다. 수평으로 쌓인다면 현재는 그냥 생겼다가 넘어간다. 그러나 밑으로 쌓이기 때문에 거대한 잠재성으로 있게 된다. actual 밑에 함께 존재하며, actual virtual로 드러나는 그 차원 전체가 the virtual이다. 각자의 virtual과 우주 전체의 virtual이 따로 있다.

www.artnstudy.com

▲실존

「*과거는 또 다른 현재가 생겨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의 현재를 지나가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 자체는 지나가지도 생겨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시간의 한 차원에 머물기는커녕 시간 전체의 조합이며, 현재와 미래는 단지 그 종합에 속하는 차원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거가 있었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과거는 더 이상 실존(exist, existence)하지 않는다.*」

-existence는 밖에 있다는 말이다. 무한한 신이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변형되면 본질essence의 반대말이 된다. 즉 철학적 맥락에서 exist는 실존이다.

www.artnstudy.com

(2교시)

◆선재의 역설과 재현, 반조
※학습목표: 시간의 3가지 역설 중 마지막 선재의 역설을 살피고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살펴본다.

▲과거와 실존
「*과거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끈덕지게 자신을 주장하면서 내속하고 공속하며, 그런 의미에서 있다.*」
-들뢰즈가 말하는 actual한 차원은 실존적 차원이다. 즉 현재는 실존적으로 있다.
-과거는 exist하지 않다. 그러나 과거는 insist, consist하다. 또한 subsist, persist하다. 즉 exist하지 않지만 분명 is라는 말이다.

▲순수과거
「*과거는 사라진 현재 속에 내속하고, 현행적 현재나 새로운 현재와 더불어 공속한다. 과거는 시간의 즉자적 측면이며, 이것이 이행의 최종적 근거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는 시간 전체의 순수하고 일반적이며 선험적인 요소를 형성하다. 사실 과거가 자신이 한때 구가했던 현재와 동시간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결코 현재였었던 적이 없는 어떤 과거에 대해 말하는 셈이다. 왜냐면 그 과거는 어떤 이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거가 현재로서의 자기 자신과 동시간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자. 그 방식은 현재를 지나가게 하면서 자신을 그 지나가는 현재에 의해 전제된 것으로 이미 거기에 자리하는 데 있다.*」
-현재가 존재하고, 과거가 그 현재에 존재했던 것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순수(다른 것에 섞이지 않은)과거다.
-과거가 이미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는 현재이면서 동시에 과거일 수 없다. 현재가 현재이면서 동시에 과거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선험적 조건의 과거가 있다. 이것이 순수과거다.

▲선재의 역설
「*과거가 새로운 현재와 공존하는 방식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자신을 즉자적으로 자신 안에 보존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수축을 통해서만 생겨나는 새로운 현재에 의해 전제된 것으로 자신의 즉자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 있다. 따라서 선재의 역설이 앞의 두 역설을 완성한다.*」
-선재는 preexistence다. 만약에 과거가 먼저 있지 않았다면 현재는 지나갈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가 먼저 있지 않다면 현재인 동시에 과거가 될 수 없다.
-보통의 생각에는 현재가 먼저 있고 그 다음 과거가 있다. 그런데 과거가 없이 현재가 지나가면서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선재의 역설이다.

▲시간의 3가지 역설
「*즉 각각의 과거는 자신이 한때 구가했던 현재와 동시간 적이고, 과거 전체는 그것이 과거이기 위해 거리를 둔 현재와 공존하지만, 과거 일반의 순수 요소는 지나가는 현재에 선재한*

www.artnstud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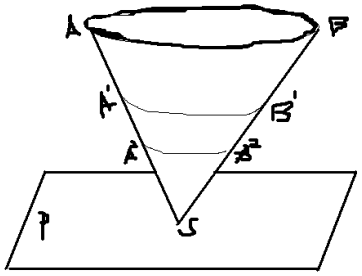
다. 따라서 시간의 실체적 요소(결코 현재였던 적이 없는 본연의 과거)가 있는 셈이고, 이것이 근거의 역할을 맡는다.」
-동시성의 역설은 현재가 과거와 동시간적이란 것이고, 공존의 역설은 현재와 과거가 같이 있다는 것이고, 선재의 역설은 오히려 과거가 먼저 있어야 현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의 역설과 재현, 반조
*「이 요소 자체는 재현(**표상**)되지 않는다. 재현되는 것은 언제나 현재이고, 이 현재는 사라졌거나 현행적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재현 안에서 그렇게 펼쳐지는 것은 그 순수 과거에 의해서다. 초월론적인 수동적 종합은 동시간성과 공존, 그리고 선재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순수과거와 관계한다. 이와 반대로 능동적 종합은 현재의 재현이며, 이 재현은 사라진 현재의 재생과 새로운 현재의 반조라는 이중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능동적 종합은 초월론적인 수동적 종합에 의해 근거 지어진다. 그리고 만일 새로운 현재가 항상 어떤 보충적인 차원을 거느린다면, 이는 그 현재가 순수 과거 일반의 요소 안에서 **반조**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라진 현재는 단지 이 요소를 가로질러 특수한 것으로서 겨냥될 뿐이다.」*
-순수과거는 표상되지 않는다.

▲습관의 수동적 종합과 기억의 능동적 종합
「습관의 수동적 종합과 기억의 수동적 종합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반복과 수축의 할당이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알게 된다. 그러나 기억의 수동적 종합에서 현재는 모든 과거 전체-즉자적으로는 공존의 총체에 해당하는 과거 전체-의 지극한 수축 정도를 지칭한다.」
-현재의 종합은 수평적으로 시간의 표면 위를 지나가는 것들을 종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종합은 그 밑에 함께 이루어진 종합이다.

▲과거의 수축
「사실 두 번째 역설의 필연성에 따라 이렇게 가정해볼 수 있다. 과거는 자신의 과거이기 위해서 거리를 둔 현재 안에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보존되며, 이때 현행적 현재는 단지 자신과 공존하는 과거 전체의 최대 수축일 뿐이다.」
-현재에 과거 전체가 수축되어 있지 않다. 과거는 과거자체로 수축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는 전체 과거의 꼭지점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베르그송의 원뿔(역삼각형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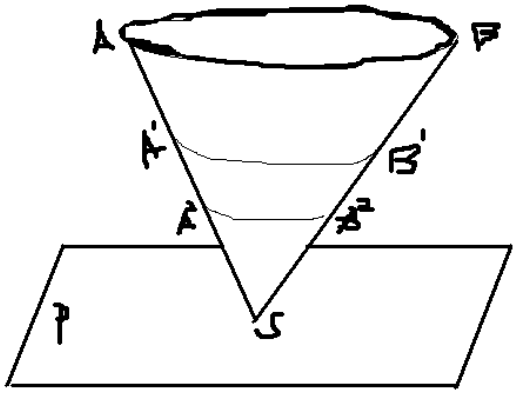
www.artnstudy.com

(3교시)

◆과거의 무한한 수축
※학습목표: 운명 등 좀 더 넓은 차원의 과거의 수축을 살펴본다.

▲과거의 무한한 수축
「*이렇게 가정했을 때, 먼저 이 과거 전체가 이완과..... 수축의 상이한 정도들에서 자기 자신과 공존해야 할 것이다. 현재가 현재 자신과 공존하는 과거의 지극한 수축상태라면, 이는 오로지 과거 자체가 먼저 무한하게 상이한 이완과 수축의 정도들에 따라, 무한하게 많은 수준들에서 자기 자신과 공존할 때에만 그렇다.*」
-무수한 과거자체가 자신의 무한한 수준에서 공존상태에 있을 때만, 베르그송의 원뿔 모형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베르그송의 원뿔

▲운명과 상호침투
「*어떤 삶, 정확히 말해서 정신적인 삶 안에서 반복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여기서는 현재들이 서로를 침범하면서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현재들은 일관성을 결여하거나 서로 대립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비일관성이나 대립이 아무리 크더라도 각각의 현재가 어떤 다른 수준에서 '똑같은 삶'을 펼친다는 인상을 받는다.*」
-우리의 정신은 질적으로 여럿이다. 하지만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그 질과 질의 관계는 상호침투성이다.

▲운명의 성격
「*운명은 어떤 재현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계속되는 현재들 사이에서 점점 가까이 드러나는 결정론적 관계들과는 전혀 무관하다. 운명이 계속 이어지는 현재들 사이에서 함축하는 것은 어떤 정위 불가능한 연관들, 원격 작용들, 재취합과 공명과 반향의 체계들, 객관적 우연들, 신호와 기호들, 공간적 상황과 시간적 계속성들을 초월하는 어떤 역할들 등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과학이 말하는 필

www.artnstudy.com

연이다. 또한 이는 결정론적 법칙이다.
-삶에서 어떤 법칙들이 아니지만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 또 그 반복들이 멈추기도 한다. 이것이 운명이다.

▲운명, 과거와 자유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운명을 표현하는 현재들은 수준의 차이를 제외하면 언제나 똑같은 사태와 똑같은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이쪽에서는 더나 덜 이완되어 있고, 저쪽에서는 더나 덜 수축되어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운명은 결정론과는 그토록 부합하지 못하는 반면 자유와는 그토록 잘 부합한다. 즉 자유는 수준의 선택에 있다. 계속되는 현행적 현재들은 단지 보다 심층적인 어떤 것의 표출에 불과하다. 즉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각각의 현행적 현재가 앞선 현재와는 다른 수준이나 등급에서 삶 전체를 다시 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때 이 모든 수준과 등급들은 공존하고 있으며, 결코 현재인 적이 없었던 어떤 과거의 바탕으로부터 우리의 선택에 내맡겨진다. 우리는 우리를 형성하는 현재들 사이의 계속적 관계와 동시적 관계들을 경험적 특성이라 부른다. 이 현재들이 인과성, 인접성, 유사성, 그리고 심지어 대립에 따라 연합하는 것도 경험적 특성이라 불리 수 있다. 반면 본체적인 특성이라 불러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떤 순수 과거의 수준들 사이에 성립하는 잠재적 공존의 관계들이다.*」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운명은 없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명은 있다.
-필연을 전제한 우연과는 다르다. 우연은 필연을 전제하고, 그 필연을 일탈하는 것을 말한다. 운명은 거꾸로다. 자유를 전제하고 어떤 반복이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와 과거의 재현
「*각각 현재는 이 수준들 중의 하나를 현실화하거나 재현하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우리가 능동적 종합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현재들의 계속을 경험한다면, 그 계속의 사태는 또한 극한으로의 이행이며, 어떤 수준이든 하나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최대한의 수축이다. 하지만 그렇게 선택된 수준은 그 자체로 수축되어 있거나 팽창되어 있으며, 무한히 많은 다른 가능한 수준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삶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수의 삶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각각의 삶이 어떤 지나가는 현재라면, 하나의 삶은 다른 삶을 다른 수준에서 다시 취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철학자와 돼지, 범죄자와 성인이 거대한 원뿔의 서로 다른 수준에서 똑같은 과거를 연출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윤회라 불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사람에게서의 원뿔을 말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무수한 원뿔들 사이에서의 차이와 반복을 말한다.

www.artnstudy.com